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6 대표전화 (02)332-0931 팩스 (02)322-9179 홈페이지 www.gilbut.co.kr

담당자 자녀교육서팀 이미현 02-330-9871 lmh@gilbut.co.kr

표현은 다정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 필사 에디션



★★ 누적 조회 1억 뷰, <유 퀴즈> 출연 화제의 인물 ★★

★★★ 2025 어린이 분야 베스트셀러 1위 ★★★

글 | 김지현 그림 | 하꼬방 발행일 | 2025.5.30. 분야 | 어린이 판형 | 188*235
형태 | 누드사철 페이지 | 176쪽 정가 | 19,800원 ISBN | 979-11-407-1338-7 (77810)

■ 책 소개

2025 어린이 분야 베스트셀러 1위!

누적 조회 1억 뷰, 〈유 퀴즈〉 출연 화제의 인물

초등 교사 김지현의 나를 빛나게 할 다정한 말들

“우리 아이도 선생님처럼 키우고 싶어요. 밝고, 배려심 있고, 당당하게!”

“매일 밤 아이에게 한 장씩 읽어줘야지 했는데 하룻밤에 반 권을 읽어줬어요.”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이 많네요. 어른이 된 저에게도요. 필사하기 좋은 책입니다.”

출간 즉시 어린이 분야 베스트 1위에 오른 화제의 책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 26만 구독자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필사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김지현 선생님의 글 40편과 포근한 일러스트를 재 수록해 원작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 글이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와 따라 쓰기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필사 에디션을 위해 김지현 선생님이 준비한 깜짝 선물! 40편의 글에 수록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세요.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미소 천사 김지현 선생님이 등장해 나를 위한 특별 조회를 들려드립니다. 하루 5분, 나에게 예쁜 말을 선물해 보세요. 용기 있는 거절로 나를 지키고 싶을 때, 진심 어린 사과로 우정을 빛내고 싶을 때,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등 예쁘고 단단한 말을 읽고 쓰는 것만으로 나의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 출판사 리뷰

“싫어, 내가 왜?”

단호한 말로 나를 지키고 싶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어린이를 위한

예쁜 말, 다정한 말, 단단한 말 따라 쓰기

김지현 선생님은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거절하기, 사과하기, 사과받기, 자신감 키우기 등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말하기 방법을 알려줍니다. SNS에 올린 아침 조회 영상은 누적 조회 1억 뷰를 기록하며 단숨에 화제가 되었고,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진한 위로와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와 부모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쓴 책을 읽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김지현 선생님의 대답이자 응원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잘하든 못하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다독이며 껴안을 줄 아는 용기 말입니다. 마음속에 용기의 싹이 트려면 따뜻하고 다정한 말들이 흘러 넘칠 만큼 쌓이고 또 쌓여야 합니다. 내 안에 단단한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40가지 예쁜 말을 큰소리로 따라 읽고 한 문장씩 또박또박 따라 써 보세요. 내가 나를 위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친구에게 사과의 말도, 거절의 말도, 감사의 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5분, 나에게 예쁜 말을 선물하세요.”

26만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로하는 교사

김지현 선생님의 내 마음 잘 쓰는 법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마음이 답답해요. 내 생각을 말로 전달하지 못하면 억울해요. 용기 있는 거절로 나를 지키고 싶다면, 진심 어린 사과로 우정을 빛내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내 안의 나를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눠 보세요. 김지현 선생님이 건네는 질문들이 힌트가 되어 줄 거예요.

“선생님은 열심히 운동을 해. 나를 사랑하는 너만의 방법은 무엇이니?”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나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니?”

“망설이다가 받지 못한 사과가 있니?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말하고 싶어?”

“긴장되고 떨릴 때 자신감을 만들어 줄 나만의 마법의 주문을 만들어 볼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은 나에게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은 무엇이니?”

“내가 나라서 좋은 순간은 언제니? 글로 쓰면 단순했던 행복도 찬란한 행복이 될 거야!”

■ 저자 소개

글. 김지현

춘천에서 초등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아이들에게 힘나는 말을 건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해 준 따뜻하고 다정한 말들이 쌓여 지금의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가 스스로에게 예쁘고 좋은 말을 건네며 나를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다정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지은 책으로는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jaehyungs_owner/reels

그림. 하꼬방

주변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이야기에 따뜻한 감성을 담아 그림을 그립니다. 책 패키지, 앨범 커버 등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책으로는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 《우주보다 큰 아이》, 《꿈을 거래합니다》, 《두근두근 어린이 사랑 인물 시상식》, 《아바타라 안심이다》 등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hakkobang

■ 차례

작가의 말

이 책 사용법

1. 내 삶을 사랑하기

특별한 나 • 이 세상에서 가장 궁금한 것 • 팔레트 세상 • 살아 있다는 특권 • 영화 같은 인생 • 우리의 순간 • 내 마음은 변덕쟁이 • 여유의 힘 • 방향의 중요성 •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 계절의 행복 • 음악과 함께하는 삶 • 흔적 속에 사는 삶 • 자연과 함께하는 삶 • 나를 사랑하는 방법

2. 멋지게 살아가기

나만 뒤쳐지는 것 같을 때 • 기억을 지우고 싶을 때 • 나의 단점만 보일 때 • 캄캄한 터널을 지나 • 도전을 앞둔 나에게 • 포기하고 싶을 때 • 토닥토닥, 괜찮아 • 싸움에 관한 오해 • 누구나 오늘은 처음이라서 • 함부로 대하는 친구에게 • 자신감을 만드는 세 가지 • 당당하게 발표하는 방법 • 생각이 말이 될 때 • 마음을 이끄는 사람 • 너의 우주를 들어 줄게

3. 단단하게 살아가기

사랑을 주고 싶을 때 • 사랑을 받고 싶을 때 • 나에게 해야 하는 말 • 나에게 하면 안 되는 말 • 사과받는 방법 • 사과하는 방법 • 거절하고 싶을 때 • 거절당했을 때 • 내가 너무 싫은 날 •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